

기고

신고포상제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시'나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예방이다.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고,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전통시장에서는 과거 시민 신고로 소화가 적지 불법행위가 시정된 이후, 실제 화재 발생 시 상인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번의 신고가 수많은 피해를 막은 셈이다.

시민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본다. 소방관이 모든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은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한다.

출근길에 본 막힌 비상구, 장사를 준비하며 본 방화문 고정, 창고 한 칸에 가려진 소화기.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허위나 중복 신고는 제외되는 등 공정성도 함께 담보하고 있다.

안전은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 소방시설은 평소에는 존재를 잊기 쉽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 된다. 그 생명줄이 불법행위로 무력화된다면, 화재는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이 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다. 생활 속 작은 관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신고하겠다"는 선택이 쌓일수록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진다.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전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할레벌떡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파트 주변에서 6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사연인즉은 이 추운 겨울날 아침에 부인이 사라져서였다. 치매(dementia) 환자이기 에. 그래서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부인에게 올인(all in)해 왔다고 한다. 대단한 부정(夫情)이지 않은가. 필자도 부인을 데리고 열심히 주변을 걷는 것을 몇 번 본적이 있다. 이 세상 수많은 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악마가 치매라 생각 된다. 모든 삶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치매요인 독소들 반드시 제거해야

이들 퇴치할 수 있는 의학적 기법은 없 는 사실이다. 단지 평상시 치매가 발생 되지 않도록 일상의 삶을 개선하려는 것 뿐이다. 그 개선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타인들은 다 걸려도 자신만은 걸리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각설(却說)하고 미국 마이애미 정신과 의 사 제이커 굿맨(Jake Goodman)이 실행을 제안하는 내용을 봐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 들이다. 그런데 생각만 하지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두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치매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다.

여하튼 그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다.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다. 가장 기본은 걷기다. 이외에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근력운동, 요가 등 몸을 움직이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이다.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도 뇌 기능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6개월 동안 3시간씩 걷기 운동을 한 결과, 이외에도 기술 습득, 사회활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하기, 금주하기, 당뇨·고혈압 관리, 충분한 수면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에도 평상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치매환자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단 한 번의 머리 부상만으로도 수십 년 후 치매에 걸릴 확률이 25% 증가할 수 있고 한다. 이 얼마나 끔찍한가.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옛날에는 군밤 주는 일도 많았다. 군밤 맛을 때마다 머리에 영향이 얼마나 갔겠는가. 또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계형성을 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곧 두뇌에 또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금연·금주도 수없이 권유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수면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인들은 직장 일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다. 이는 곧 수면 부족으로 이어진다. 하룻밤이라도 잠을 못 자면 그다음 날 명료치 않은 두뇌활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치매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여하튼 자신을 비롯한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치매 요인을 반드시 제거 또는 줄이는 방향으로 삶의 키포를 돌려가면 어떨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접힌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옮겨올 때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정호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음력 11월 14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for January 2, 2026. Each entry includes a zodiac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advice or prediction.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Features a large hand graphic with a map of Korea on the palm, and text celebrating the company's history and future goals.